월요광장

김장의 의미

정유진
코리아컨설트 대표

절기상 소설(小雪)이 지난 지 일주일이 되었다. 음력으로 10월 20일 무렵인 소설은 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리는 첫겨울의 징후가 보이는 날이다. 조선 헌종 때 정학유(1786-1855)가 지은 '농가월령가'를 보면 이 무렵에 보리나 밀을 심고 김장을 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미 조선시대에도 김장이 중요한 연례행사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장문화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김장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를 장에 담그거나 소금에 절인다.'는 이규보(1168~1241)의 시뿐만 아니라 '가꾼 채소를 거두어 김장을 담아 겨울을 준비한다'는 서정적 내용을 담은 권근(1352~1409)의 시가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겨우내 보관하여 먹어 온 김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가월령가' 중 음력 10월령은 가을 추수로 풍요함 속에 피어나는 이웃간의 온정을 노래하고 있다. 아울러 입동과 소설의 절기에 무와 배추로 김장을 하는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 있기도 하다.

김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오늘날 '김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배추김치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은 빨간 고춧가루가 한국에 유입된 조선 후기부터다. 대대손손 구전과 손맛으로 전해진 김치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다.

세시풍속 김장문화에는 개개인을 넘어 사회공동체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대의 모습이 담긴 추억도 많다. 1969년 우체국 사보였던 '체신문화' 12월호의 연재 만화에는 김장 보너스를 걱정하는 가장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이후 90년대까지도 때마다 등장하는 아버지의 김장 보너스며, 80년대 획기적인 김치냉장고의 출현 그리고 2000년 이후 광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어 온 김치 관련 축제 등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김장은 한국인의 삶 속에 중요한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명맥을 지켜 온 김장문화가 전과 같지 않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도시화와 세계화에 따른 주거공간, 가족 구성원 그리고 새로운 식습관 등 전반적인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김치 소비의 형태가 바뀌고 소비의 양이 줄어 감에 따라 김장은 이미 애쓰고 지켜야 할 문화가 되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우려 속에서도 김장은 해년마다 이어졌고 가족과 이웃간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김장의 역할만큼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켜 온 김장은 우리 공동체에서 여전히 으뜸가는 행사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김장문화'는 2013년 종묘제례 및 제례악, 줄다리기, 아리랑 등에 이어 인류무형유산이 되었다. '김장, 만들고 나누는 김치'(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라는 영문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지키며 해 온 겨울 김치 만들기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고유문화인 동시에 세계 인류를 위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생활문화인 것이다.

올해 소설과 같은 날이었던 11월22일은 마침 '김치의 날'이었다. 작년부너 이어지는 코로나19 속에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나와 모두가 만나는 잔칫날처럼 즐길 수 없음이 크게 아쉬웠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배추를 한가득 싣고 달리는 트럭을 보거나 소금에 절인 배추 더미를 볼 때면 갓 버무린 생김치와 돼지수육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가족을 떠올리며 미소짓게 된다. 가족·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김장이 어려운 누군가의 겨울을 위해 이 귀찮고 손 가는 일에 정성을 담아 주는 일은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다.

김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나눔'의 정신일 것이다. 김장이 자연과 사회에서 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왔듯이 이제는 지역과 세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형식으로 공유하고 계승·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 피드에 자주 오르는 2021년의 다양한 김장의 모습을 볼 때면 더없이 반갑다. 보는 즉시 따라 하고 싶은 미덕의 풍요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기 고

오늘, 그리고 '역사'를 위해 - 두 죽음에 부쳐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그자가 죽었다! 허망하다!

아직 한 가지도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는데, 씻을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죄를 지은 자가 평안하게 집에서 '자연사'했다. 할 수만 있다면 화타를, 허준을, 이제마를 불러내 자연으로 돌아간 그자를 되살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직 들어야 할 말이 많고, 풀고 가야 할 게 산맥을 휘감은 칡뿌리처럼 엉켜 있다. 그런데 죽음과 침묵이 그 모든 걸 삼켜버렸다. 제대로 죗값을 받아내지도 못한 채, 그 모든 책임을 어두운 침묵 속에 묻어 버렸다.

자꾸 그자의 공과(功過)를 들먹이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자가 지은 죄를 살펴보자. 10·26 이후 유신의 폭압 아래서 엷어진 인권과 민주, 자유의 가치가 살아나던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과 일상을 철저하게 부숴버린 자다. 권력을 잡겠다고 전방의 군대를 서울로 빼돌려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자다. 정권을 잡기 위해 상관인 정승화 계엄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잡아들이고 임무에 충실했던 부하이자 후배인 김오랑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을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자다. 초여름 어느 일요일 평화로운 빛고을을 폭력과 야만, 살육의 피로 물들이고 공포의 사슬로 묶은 자다. 오죽하면 5·18을 겪은 광주시민들이 헬기 소리에 겁을 먹고 다시 틀어진 도청 앞 분수를 멈추라 했을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총칼을 쥐어주고 마치 전쟁터에서 적국의 도시를 점령한 것처럼 행동하게 만든 자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진실을 말한 언론인들을 현장에서 내쫓은 자다. 난데없이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 삼청교육대로 보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끝자락으로 내몰았던 자다. 불교계를 정화한다며 사찰에 군홧발 자국을 새기고도 뻔뻔하게 백담사로 도망친 자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학생들을 군대에 가둬 놓고 동료를 팔도록 하고 끝내는 목숨을 내던지게 만든 자다. 그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고문이 당연하다는 듯이 일상처럼 행해졌다. 돌아가신 김근태 장관은 한 달여 동안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짐승'처럼 고문당하고, 권인숙 의원은 부천의 경찰서에서 성 고문을 당했다. 대한민국을 '죄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나라'로 떨어뜨린 자다. 이런 자를 전직 대통령이라고, 용서와 화해를 운운하는 건 역사에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짓이다. 용서와 화해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배려'이다. 대체, 그자가 언제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고 사죄한 적이 있단 말인가? 그런 자를 위한 향불도 아깝다.

한번 따져 보자.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화해한단 말인가? 올해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노먼 소프의 사진과 필름을 기증받았다. 사진 속에는 41년 전 5월 27일 새벽 광주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쓰러져 간 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직 여드름 자국이 남아 있을 법한 어린 학생들, '소년이 온다'의 그 소년들이 피 흘린 채로 옛 전남도청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때 쓰러지지 않았다면 그 소년들은 어찌 되었을까?

그자가 죽기에 앞서 한 분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 41년 전 스님이었던 그분은 5·18 당시 부상자를 부축하다 총에 맞아 죽음보다 더한 아픔을 몸에 새기고 사셨다. 그날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시다가 세상을 등지신 게 오늘의 비극이다. 이 참혹한 역설 속에서 어찌 용서와 화해를 말할 수 있을까? 먼저 가신 오월의 영령들이, 지금도 죽음보다 더한 아픔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이 꺼내기 전에는 용서와 화해를 입에 올리지 말라.

이제는 '역사' 속에 묻자고 가벼이 말하지 말라. '역사'는 그리 가볍고 따사롭지 않다. '가을 찬서리'(秋霜)보다 차갑고 따가운 햇살보다 강렬한 게 '역사'이다. 따사로운 '역사'는 41년의 고통과 그 무게를 껴안은 채 목숨을 내던진 분이나 지금까지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어울린다. 수많은 죄악을 침묵 속에 묻어 버린 자를 위한, 자신과 그 족속들의 호의호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순 자를 위한 '역사'는 없다.

기 고

ESG 시대, 광주 공동체가 해야 할 일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거버넌스(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힘쓰고, 약자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불과 1년 전 만 해도 이렇게 관심을 받는 주제가 아니었다. 올 들어 ESG를 소개하는 책이 20여 권 넘게 나온 걸 보면 격세지감이다.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하다.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ESG를 말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다들 그저 추상적으로 접근한다. 세상이 바뀌고 해외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앵무새처럼 말할 뿐이다. 정작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직까진 별다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기업의 문제에 왜 호들갑이냐 물을 수 있다. 문제는 예전처럼 기업이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환경과 사회를 위해 가치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투자처에 ESG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기업 평가를 해 보니 ESG 경영을 하는 곳이 성과가 좋다는 인식이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올해 갑자기 국내 은행들 상당수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배경에는 은행들이 스스로 탄소중립에 동참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유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진다. 삼성·현대·SK·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ESG를 이야기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ESG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이를 요구한다거나 수출 기업의 경우 ESG 보고서를 요구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에도 가치 소비에 부합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기업이 환경·사회·거버넌스를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기업은 ESG 관점에서 보면 사회(S)와 지배구조(G)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조합원이 참여하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만 알려주면 해결할 방법은 충분히 있고, 오히려 기업의 성장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광주의 기업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SG 인증 프로그램을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해서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광주의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큰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업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법·제도는 이미 마련된 셈이다. 이제 기업이 직접 대응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ESG 보고서 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광주는 기업이 좋은 경영 활동을 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하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ESG 경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광주의 환경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며, 투명한 경영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음 버전의 광주형 일자리가 될 것이다.

社 說

이순자는 두루뭉술한 사과로 넘어가려 하고

고(故)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의 대통령 재임 중 과오에 대해 처음으로 대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대상에서 5·18은 제외된 데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아 국민의 반감에 떠밀려 나온 면피성 사과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 씨는 그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5일장을 치르는 동안 쏟아지는 사과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시신 화장 직전에야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나마 이 씨는 사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고 그 범위를 '재임 중'이라고 못 박았다. 전 씨가 1980년 9월 1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발생한 5·18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전 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도 기자들과 만나 "(이 씨가) 5·18 관련해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며 "분명히 재임 중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5·18 관련 단체들은 국민적 반감 탓에 시신을 누일 땅 한 평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나온 진실성 없는 사과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전 씨 사망 이후 5월 단체들은 본인이 반성과 사죄 없이 떠난 만큼 가족들이라도 이를 대신 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한데 이에 떠밀려 마지못해 사과하는 척하면서 5·18을 제외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 씨가 사망한 날 5·18 유공자인 이광영 씨는 총탄 부상 후유증으로 41년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처럼 지금도 5·18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라도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등 진상 규명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순자 씨의 속 보이는 뻔한 거짓 사과에 속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안철수는 우리더러 전두환을 용서하라 하고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고 있다. 선거가 시나브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어제 5·18 묘지를 찾았다. 참배에 앞서 민주의문 방명록에는 '열사들이시여, 이 나라 국민 통합의 향도가 되어 주소서'라고 적었다.

그가 광주 방문에서 강조한 바는 '용서'와 '통합'이다. 그는 "지난 화요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사과도 반성도 없이 떠난 사람을 용서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라면서도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광주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립과 갈등, 상처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받은 역사를 뒤로하고, 5·18 정신을 더 크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라며 그것은 열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이 나라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초석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죄는 용서하지 않지만 사람은 용서한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의무가 있고, 또 사랑은 못하더라도 용서는 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일기에 남긴 글을 인용한 그는 "앞으로도 계속 전두환이라는 이름 석 자에 분노만 하며 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용서와 화해, 국민 통합과 역사 발전, 그 중심에 광주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광주 시민들에게 전 씨에 대한 용서를 강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조금 찜찜하다. 직접 피해자도 아닌 안 후보가 과연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게 외부에서 강요한다 해서 될 일인가.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말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전두환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떠나고 그의 부인 이순자 씨가 거짓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는 마당에 '광주의 용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

無等鼓

승부는 지금부터

잔뜩 찌푸렸던 그들의 얼굴에 요즘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들 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어지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 중반부터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으니 그럴 만하다. 최근엔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별것도 아닌 여론조사 가지고 웬 소란이냐'며 눈을 흘기는 이들도 있겠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별것'이다. 이게 참 묘한 것이어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또 다른 여론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특히 여론조사는 '공신력이 있는 데다 일정한 추세를 반영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여론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 결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불어넣는다.

이런 효과가 있다 보니 유리한 조사표를 받아 든 후보 진영에선 기뻐 날뛰고, 그렇지 못한 진영에서는 낯빛이 회색이 될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결과는 곧바로 캠프 밖 일반 지지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캠프 인사들이 "표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 들린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 막바지에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지라시'가 난무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나눠본 여러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아,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야. 이러면 어려운데"라며 스스로 풀이 죽는 스타일과 "좋아지고 있어. 지금부터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라며 다독이는 스타일이다. 듣는 입장에서야 근심과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보다는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들의 희망찬 이야기에 더 솔깃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끝나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선거다. 특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선거는 더욱 그렇다. 지지자들을 설득하려면 캠프 내부에서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한다. 후보로서는 '확신을 갖는 캠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의 쇄신과 선대위의 혁신도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